

《 聖 句 》

我們若在光明中行，如同上帝在光明中就彼此相交，他兒子
耶蘇的血也洗淨我們一切的罪。 約翰一書 1：7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귄다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7

순 서

1. 제 4차 정기 세미나(주제 : 북방선교의 현황과 전망)
2. 사회주의 초급단계에서의 중국 사회문제
3. 2월 예산 사용내역, 후원상황
4. 알림, 회원 동정
5. 기도제목, 각부 모임보고, 교제 및 테이프 안내
6. 선교 중국어 강좌 안내

북방선교의 현황과 전망

김한성 연구원

※ 김한성 연구원은 성균관 대학교 대학원 증분과를 졸업하고 현재 본 선교회 연구간사로 수고하고 있습니다.

1. 북방선교의 정의 : 북방선교란 동구권, 소련, 중국, 북한, 몽고, 베트남을 대상으로 하는 선교를 말한다.

2. 북한사회의 실상

북한은 마르크스 레닌주의, 주체사상으로 무장되어 있어 무너지기가 쉽지 않다. 북한은 정치적 환경면에서 1980년 노동당 제 6차 당대회에서 김정일을 후계자로 공식 확인하면서 권력집중이 심화되었고, 당중위에 군사위원회가 상설 조직되어 당의 군부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 졌다. 현재는 권력의 핵심부에 기술관료 출신이 득세하고 있다. 즉 1988년 6월 현재 정치국원과 당비서중에서 김일성부자를 제외한 21명중 16명이 기술관료이다. 이것은 북한이 김정일 체제의 정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제정책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특히 주민의 생활수준 향상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반증이다.

대외관계와 관련하여 1984년 강성산을 정무원총무로 임명하였는데, 이것은 한 중관계 발전의 견제에 따른 다소 친밀감의 표현이다. 김정일의 권력승계에 대한 저항세력으로는 1) 빨치산 중심의 혁명 일세대에서 혁명 삼세대로 권력이 넘어감에 따라 권력의 핵심에서 배제된 혁명 이세대 즉 장년관료 및 지식인의 반발이 크다. 2) 일부 군지도자들은 군에 대한 경험이 없고 자질이 부족하다. 3) 경제관료와 친중국계 원로 4) 일반주민들은 3대 혁명소조가 3대혁명을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벌질서와 서열을 무시하고 사회기강을 극도로 문란하게 하였다고 반발하고 있다. 5) 김일성 일가내의 반김정일세력으로 삼촌 김영주, 계모 김성애와 그 자녀들이 있다.

김정일 권력승계의 정책전망 : 정치 사상교육 및 김정일 우상화를 강화하면서 점진적인 주민생활 향상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것임. 대외정책 : 개방확대, 대남정책 : 남북교류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이나 권력이 흔들릴때는 무력도발의 가능성이 있음. 저항세력이 집권할 경우 실용적인 노선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김일성이 사망할 경우 북한의 체제가 무너질 것 같지만 국가체제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 김일성이 죽은후에 김정일이 권력을 승계하게 되고 김정일이 제거되더라도 북한 사회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있어서 제일 방해가 되는 것은 민족주의 즉 문화적인 것(서방의 기독교니 동방 기독교니 하는 것과 미신) 일본과 대만의 경우 교만과 편견등인데 북한에는 공산주의자들이 선교의 장애요소를 다 제거해 놓아서 김일성만 물러가면 그곳은 잘 갈아놓은 옥토가 된다고 한다.

3. 북한인의 심리상태

- 1) 동조과잉적 상태로 지나치게 누구에게나 동조하려는 형태로 과잉충성심리
- 2) 권위주의적 : 강자에게는 무비판적으로 복종하나 약자에게는 호통치는 심리
- 3) 형식주의 유교문화의 흔적으로 겉모양과 형식절차만을 중요시하는 태도로 예를 들면 김일성저작선집 20권 480쪽에 일꾼들이 형식주의의 병에 걸려 있기 때문에 문에 깊이있는 일을 하지 못하고 겉치레로만 한다는 지적 4) 종교심리 : 종교란 신을 맹목적으로 믿는 것으로 지배계급의 착취 억압의 수단이다 라는 북한사회과학 사전의 인식이 팽배해 있다. 5) 김일성의 종교화 : 김일성을 예수로, 집회를 예배로, 주체사상을 교리로 대체시킨 상태로 김일성이 인민에게 영생을 준다고 가르침. 즉 초월적 존재는 김일성이, 의식은 김일성의 모든 흔적을, 전부지

역은 전적지로, 방문지역은 사적지로 규정하여 이를 성역화하고 북한의 동포로 하여금 절사업등 주변미화의 방법을 통한 의식을 진행시킨다. 또 북한전체는 승려나 교사와 같은 전문가를 양성하고 그들로 하여금 교리를 가르치게 하여 공동체를 유지시킨다.

4. 북한교회의 실상과 선교전망

데이빗형제 : 1987년 우리는 북한 북부지역의 24개 마을주민의 반이상이 기독교신자라는 소식에 크게 놀랐습니다. 북한에 있는 한 그리스도인은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을 꼭 보내주십시오 ” 라는 편지를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어느 언론인 : 용정에 사는 언론인 어느 한국인 부인이 만년필로 꼼꼼하게 성경을 664쪽 33만 5천자나 베껴 적어 놓았다고 한다.

귀순자들의 증언 : 1) 이만화목사 ;용천군 양시부근에서 10여개의 협동농장에 500여개의 소조와 2000여명의 신도를 확보하였으나 1957년 8월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선거시에 선거거부로 발각되어 10여명이 처형됨. 2) 박천군 여교사사건 ; 1959년에 찬송가를 가르치다가 처형됨 3) 태극기사건 ; 1960년에 평안북도 운산에서 태극기가 걸림 4) 1961년 평안도 박천군 상출기 뒷산에서 토굴을 파고 5년여 동안 신앙생활을 하던 행방불명자 13명을 발견하여 처형하였다. 당시 성도들의 머리가 길어서 원숭이 같았으며 무릎 오금이 잘 퍼지지 않았다고 함. 5) 함흥 김태홍목사 사건 ; 6.25전쟁 당시 폭격당한 교회의 지하실에서 20여년을 거주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1972년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고 북한에 재개발이 시작되어 발각되었다. 당시 교회성도는 모두 36명으로 18세에서 78세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있었는데 인민재판을 거쳐 함흥시 만세교 강가에서 교수형을 당하였다.

5. 북한의 교회사

1) 조선기독교도 연맹창설 : 1946.11.28 강양욱을 포함한 14명의 중앙위원과 상임위원 6명, 연맹원수 85,118명 2) 1960년대초 주체사상의 체계가 확립되고 일인지배체제가 확립되면서 외형적으로 기독교가 소멸됨. 3) 7.4공동성명으로 기독교도 연맹이 재출현했으며, 아시아 기독교평화회의에 참가(1976), 세계교회협의회에 가입시도, 공산권 중심의 해외기독교 단체회의에 참가 4) 1979년 묘향사의 보현사 복원과 함께 서방세계에 공개 5) 조국통일을 위한 북한 해외동포 기독교자들의 현황 발표. 봉수교회(담임: 이성봉목사)는 평양시 봉수동에 자리잡고 있는 2층건물로 약 500여명이 예배를 드릴수 있는 규모이며 뽕쪽탑과 십자가가 없고 간판은 1988년 11월 재미교포들이 300달러를 헌금함

북한선교의 비전 : 뉴질랜드의 Eddie Cairns 라는 선교사는 자신이 받았다는 하나님의 계시를 다음과 같이 간증하였다

“ 나는 만주에서 선교를 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심암에 있는 한 산에서 성령의 화산이 폭발하는 광경을 목격하였다. 그런데 폭발한 성령의 불길이 모두 북한으로 흘러내리는 것이었다. 그 광경은 꿈이 아니었고 너무나 생생하게 현실로 느끼게 되어 북한선교를 시작하게 되었다. ”

6. 북한(공산권) 선교의 방법

1) 한국교회의 역사에 대해 알아야 한다. 특별히 북한교회의 상황을 잘 알아야 하며 많은 신학자들이나 학자들이 남북의 역사와 교회사 그리고 세계사에 대한 연구를 해야 한다.

2) 북한에서 비록 그들이 자신의 의도대로 계획되고 정해진 장소만을 보여준다고 해도 계속 방문하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처음 미국인들은 중국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때문에 1976년까지는 감히 여행을 하려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문제는 바로 공포심에 있는 것으로 그러한 사람들은 결국에 뒤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앞장서서 전진했던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3) 중국을 여행하는 미국인 관광객이 가방안에 성경을 넣어 보내면 여행객이라는 이유로 가방을 조사 당하지 않고 무사히 성경을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중국에서 믿음을 지킨 자들과 그들의 지도자들을 연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저는 중국에 있는 한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북한에 복음을 전하는 첫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더욱 눈을 넓혀 수많은 중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중국에 있는 교회들 주안에서 계속 도와주신다면 그것을 통하여 복음이 북한에 까지 전해질 것입니다. 남한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넘쳐 흐를때 북한으로 넘어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재 생각에는 중국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과 만주로 향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과 또한 북한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과는 시기적으로나 지리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7. 공산권(북한) 선교사의 자격

A) 선교의 이해

1) 선교에 대한 호기심과 매력 : 선교지 사람들보다 높은 수준의 생활을 한다는 착각이나 남이 못가는 나라를 간다는 막연한 동기 즉 선망의 대상이 아니다

2) tourism : 여행을 다닌다는 생각

3) 현실도피 : 목회지가 어렵기 때문에

B) 동기가 바로 서야한다

1) 선교에 대한 헌신은 모든 크리스찬이 해야 하지만 모든 크리스찬이 선교사로 헌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선교지는 M1 동질문화권 M2 아시아문화권 M3 우리와 문화적 배경이 전혀 다른 선교지

3) 부르심 : 선교사는 복공대이다. 따라서 특수목적을 피고 가는 것이다. 선교는 영적투쟁이다. 부르심을 확인하는 방법 : a.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b.하나님의 뜻을 이해 : 한국의 선교사들은 열정은 있지만 하나님과 동행할 방법을 모른다. 철저하게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c. 성령에 민감할 것 ; 윌리엄 켈리이후 현대 선교사들은 무겁게 기도했다. 영적능력은 많은 기도를 통하여 형성된다. d. 지역교회의 확인

C) 선교의 준비

1) 마음문을 열어서

2) 귀를 항상 선교쪽으로 열어서

3) 선교에 관계되는 일에 바비 움직이라

4) 마음을 늘 청결하게 가꾸라

5) 장애물을 극복하라 : a.고학력 수준일수록 선교하기가 어렵다. 신학교를 졸업하는 즉시 선교에 뛰어 들어라 b. 이성관계 c. 부모 d. 건강 e. 말씀혼련은 신학적 혼련과는 다르다. 즉 말씀속에 진리를 발견하고 그것을 생활에 적용시키는 혼련이 필요하다.

※ 북녘땅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

* 동토의 땅에서 믿음을 지킨 자들을 위로하사 순교를 각오하게 하옵소서

* 순교의 피를 인하여 말씀을 받은 자들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옵소서

* 북한땅에서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복음을 접하게 하옵소서

*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리스도를 증거케 하옵소서

* 방송매체를 통한 복음의 전달이 활발하게 하옵소서

* 비밀리에 전해지고 있는 공산권 문서선교가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시되 그 가족들과 사역자들의 사역을 지켜 주소서

* 북한체제의 변화가 일어나 북한선교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 우리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

* 여전히 북녘땅을 증오하고 용서하지 못한 죄를 사하소서

* 중보기도의 무릎이 연약했음을 용서하소서

* 복음의 능력으로 이 민족의 아픔들을 지유하게 하소서

사회주의 초급단계에서의 중국사회문제

III. 종교의 실제 역할에 관하여

※ 이 논문은 중소연구(한양대학교 중소연구소 발행) 제 12권 4호에 실린 글을 발췌 연재하고 있습니다.

계급사회에서 착취계급이 종교를 이용하고자 할 때 종교는 대중들의 무지를 마비시키는 작용을 한다는 것은 이미 주지하는 바이다. 그러나 사회주의 초급단계에서 종교가 어떠한 작용을 하는지의 문제는 새로운 문제이다.

마르크스주의 저작에서는 사회제도의 거대한 역사적 변혁이 일어날 때마다 사람들의 관점과 관념도 변화된다는 것은 매우 분명하다. 즉 사람들의 종교관념도 커다란 변혁을 겪게되며 경제적 토대의 변혁에 따라 방대한 상부구조 역시 빠르게 혹은 완만하게 변혁된다고 말하고 있다. 거의 40년이 흘렀는데 우리나라의 종교가 정치적 성격에서 어찌 해방전과 같을 수 있겠는가? 대부분이 종교를 갖고 있는 소수민족의 인민군중들은 비록 그들이 종교를 갖고 있다하더라도 사회주의 건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전국각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진적인 인물중에서도 신자가 일정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만약 종교가 사람들을 마비시키는 아편과 같은 작용을 한다면 이러한 사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밖에 우리는 종교장소가 있음으로써 그들의 일부 활동이 국가의 방침, 정책을 전달하고 사회발전을 돕는데 유익한 작용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많은 사원, 교회는 정부의 지도아래 신자와 지식인들에 대한 공작을 추진하여 애국단결의 통로를 확대해주며 많은 종교단체 혹은 신자들이 문화활동을 벌이고 의료에 관련된 자문을 해주고 있다. 이러한 것을 모두 아편의 해독으로 돌릴 수 있겠는가? 당13대 보고에서 “생활, 실천의 관점은 인식론에서 가장 우선적이고 기본적인 관점”임을 지적하고 있다. 종교의 역할문제에 대해서 편파적인 생각을 버려야 하며 생활, 사실에 근거하여 새로운 인식을 가져야 한다.

사회주의 사회에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가? 실천을 통해서 볼 때 인간의 정치적 태도는 정치교육과 관련이 있을뿐만 아니라 정권이 사람들에게 부여하는 물질적 이익과 관련을 갖는다. 해방이후 종교신자와 전국 인민들은 똑같이 새로운 사회가 가져온 좋은 점을 받았다. 절대다수의 전도자들은 원래의 잘못된 관점을 버리고 애국주의 노선을 따라 전진했다. 신자들이 사회주의 건설에 투신하는데 신앙상의 장애가 날로 소멸되었으며 그들은 스스로가 애국애교의 일치를 체험했으며 “공산주의와 극락세계는 모두가 좋으며 살아 있는 동안 공산당을 따르고 죽어서는 예수를 따라 하늘로 간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들의 관점은 마르크스주의 반영론, 발전본적인 관점을 가지고 해석할 수 있다.

종교세계관은 피안의 세계를 핵심으로 하지만 사실 많은 교의에서 피안의 세계를 말하고 있다. 어떤 종교활동은 형식상 설교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특정한 행위규범을 수립하는 것이다. 많은 종교에서 현세에서의 적선을 내세로 들어가기 위한 자격으로 간주하고 있다. 불교에서는 보제중생을, 기독교에서는 애인여기를 최고 계명으로 하고 있다. 이것은 전적으로 신자들의 적극적인 적선을 장려하는 정신적인 역량이다. 종교는 일부 사람들에게 품성을 다듬고 사상을 정화시키는 작용을 한다.

종교에 있어서 고통에서 벗어나는 작용을 우리는 단순히 마비, 속임수로 비적할 수 없으며 “종교는 세계의 총체적인 이론으로서 삼라만상에 대한 강령이자 장엄한 보충이며 위안과 변호의 보편적인 근거이다”라고 마르크스의 말을 재

음미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을 하기전에 마르크스는 종교의 현실에 대한 반영관계는 일종의 잘못된 세계관이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마르크스는 종교적 세계관의 지위와 역할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통상적으로 말하는 세계관보다 개괄적이고 광범위하며 종교의식을 가진 사람에게서는 더욱 권위를 갖는다고 말했다. 그는 계급사회에서 인간이 태어나 살고 있는 지구는 고난의 세계인데 압박 받는 사람들이 어디에서 위안을 찾을 수 있는가를 생각했다. 어떤 사람들은 종교적 신앙하에서만 편안하게 숨쉴 수 있다고 느낀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종교는 고통을 이겨내는 작용을 한다.

이에 대해 엥겔스도 비슷한 견해를 갖고 있었다. 그는 초기 기독교를 언급하면서 기독교는 당시 사람들에게 사상적인 위안을 위한 손쉬운 형식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또 엥겔스는 이러한 위안은 반드시 종교적 형식으로 나타난다고 말했다. 철학이 세계만물의 본질을 설명할 수 있다고 하지만 철학은 보통사람들의 사상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고통을 무마해주지 못한다. 쉽게 말해서 종교적인 위안이 갖는 부드러움은 인간의 마음에 쉽게 와다울 수 있다.

다른 측면에서 종교속의 위안이라는 측면은 계속 이어져 불교에서는 관세음살고난을 구하는 부처로 생각하고 기독교에서는 목사를 위안을 주는 정신적인 지도자로 해석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람들이 종교속에서 위안을 얻고자 하는 마음을 볼 수 있다.

종교적 위안에 대해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착취계급이 인민들을 마취시키기 위한 것으로 당연히 비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계급적인 대항관계가 없는 사회에서 우리는 종교적 위안이 현실적인 가치가 없다고 해서 이를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일보다 더 나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가? 실제생활에서 인간이 위안을 통해 절망적인 고통을 벗어나려고 하는 일은 흔히 있는 일이다. 예를 들면 의사가 환자의 병이 악화된 것을 환자에 말하지 않는 것이 좋을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의사를 거짓말을 했다고 비난할 수 있는가? 수천년간 사람들은 사회생활속에서 실패해서는 안될 일을 실패했을 때 왕왕 인과응보라는 생각을 하는대 이는 분명히 유심주의의 신비적인 색채를 띠고 있다. 그러나 종교적인 위안에 의존하는 일이 죽음이나 절망을 구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사람과 사람간이 모순을 완화시키지 못하지 않았는가? 계급적 적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사회에서 이러한 종교적 위안은 어떠한 피해를 낳는가? 물론 종교적 위안과 마르크스주의의 세계개조를 위한 마르크스주의의 혁명이론이 다르다. 그러나 종교적 세계관이 마르크스주의가 생겨나기 이전에 이미 보편적으로 보급되었고 여전히 영향력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영향력을 소멸시키기 위해서는 역시 이 조건이 성숙되기를 기다려야 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2 월 예산 사역 내용

수 입	지 출
이 월 660,400	입 대 료 300,000
후원금 1,265,000	비디오 구입 300,000
교재판매 55,000	사 례 비 150,000
	등 록 비 203,000
	교재구입 150,000
	도서구입 41,500
	회 지 25,000
	전화요금 21,710
	사무비 16,810
	복사 13,040
	연료비 29,600
	우송료 15,340
	노인회 지원금 10,000
계 1,980,400	1,280,500

2 월 후원 상황

서옥희, 박정숙, 서기원, 박지화, 김원영, 양혜선, 박미라
 남덕우, 김은숙, 박혜영, 안순덕, 김일봉, 김승원, 이성철
 석귀희, 이은자, 이영희, 윤영자, 허성도, 김구성, 박지석,
 김한성, 고희정, 김만섭, 김영혜, 김의득, 김순자, 나미옥
 구규식, 박종표, 서옥희, 신길순(김정애), 윤운순, 윤연자,
 윤종원(문정희), 이동화, 이지순, 이의선, 이덕형, 이금복,
 이명숙, 전옥규, 장경순, 정재순, 최경숙, 천운철, 박성주,
 안병국, 박동화, 정인숙, 이지순, 서진, 김성순
 단체 : 동승교회, 대은 청년
 무명 : 용전동, 영동, 동승

1월 현금자 명단에서 누락된 분 : 이지순, 서진, 이덕형
 비디오 헌물(일부) : 박성주

제 1회 선교 중국어 강좌 운영(2,3월)

수강료 : 520,000
 감사료 : 640,000

알 림

1. 제 4 차 정기세미나가 2월 26일 오후 7시 본선교회 세미나실에서 김한성 연구간사님을 모시고 '북방선교 세미나 보고'란 제목으로 개최되었습니다.
2. 제 5 차 정기세미나가 3월 26일 오후 7시 본선교회 세미나실에서 이 영구 선생님을 모시고 '북방선교 세미나 보고'이란 제목으로 개최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3. 김 한성 회원께서 3월 1일자로 상임 연구간사로 취임하였습니다.
4. 지난 2월 1일부터 시작된 제 1 기 선교중국어강좌는 은혜중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제 2 기 선교중국어강좌가 역시 중급과 초급으로 나뉘어 4월 2일(月)과 4월 3일(火)에 각각 개강할 예정으로 있사오니 주위의 관심있는 분들에게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 광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번역 추진 상황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中國基督教 百年史』는 번역이 완료되어 1차 교열 작업 및 운문 작업을 마치고 마지막 교열·운문 작업에 들어 갔습니다. 화보 『中國과 敎會』는 1차 번역 작업이 진행중에 있고 또 『中國宣敎 핸드북』은 곧 작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6. 토요일성경반이 매주 토요일 10시부터 2시간동안 본선교회 세미나실에서 박성주 선생님의 지도로 모입니다. 대상은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공부를 마친 다음 이어서 1시간 동안 김용배 전도사님의 인도로 기도후원회의 기도회가 열립니다.
7. 개학과 함께 대학 성경반이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放通大 중국어 성경반(☎ 7404-573)은 매주 火요일 저녁 7시에 동송동 방송통신대학 뒷편에 있는 동송교회 교육관에서 모임을 갖고 서울大 중국어 성경반(☎ 880-6064, 6073 김성근)은 매주 火요일 저녁 6시에 서울大에서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부근의 관심있는 분은 타 대학생이나 일반인도 환영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회 원 동 정

1. 양혜선 회원님께서 3월 7일 부친상을 당했습니다. 슬픔중에 있을 자매님께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2. 지난 한 달 동안 학술회의 참석차 대륙에 머물렀던 이영구 회원님께서 3월 2일 건강한 모습으로 귀국하셨습니다.
3. 빈미정 간사님께서 2월 24일 화축을 받셨습니다.
4. 강갑숙 회원님께서 4월 8일 12시에 삼익쇼핑센터 5층 삼익예식장(1호선 오류역 하차)에서 이상선씨와 화축을 받습니다.
5. 이동화 간사님께서 3월 12일부터 3월 16일까지 Trinity Extension Program에 참가합니다.

기 도 제 목

1. '중국선교 시리즈'로 간행될 본선교회의 번역서들을 출판할 출판사 선정을 위하여
2. 10월 이후의 새 선교회 사무실 마련을 위하여(보증금, 임대료, 위치등)
3. 새 연구간사의 취임과 함께 선교회 사업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4. 함께 동역하는 타 선교회와 바람직하고도 효과적인 협력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5. 한국을 찾아오는 중국인과 교포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6. 각 대학에 중국어 성경반이 만들어져서 중국선교에 소명이 있는 일꾼들이 구체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특히 각 대학 중문과에 계시는 기독교인 교수님가운데서 이 일에 많은 분이 동참하실 수 있도록

각 부 모 임 보 고 및 안 내

각부모임 보고

연구부: 2월 9일(금) 저녁 7시, 2월 23일(금)저녁 7시, 3월 9일(금) 저녁 7시
번역출판부: 2월 10일(토) 저녁 7시, 2월 17일(토) 저녁 7시
정기간행부: 2월 9일(금) 저녁 6시 반, 2월 20일(화) 6시 반
기도후원회: 2월 10일, 2월 24일 낮 12시

각부모임 안내

연구부: 3월 23일(금), 4월 13일(금)에 각각 저녁 7시 (매월 2, 4째주 금요일)
교육부: 별 도 통 보
번역출판부: 3월 20일(화), 4월 3일(화)에 각각 낮 3시 (매월 1, 4째주 화요일 낮 3시로 바뀌었음)
정기간행부: 3월 20일(화), 4월 10일(화)에 각각 저녁 6시 반(매월 10일과 20일에 정기모임, 단 해당일이 일요일이나 공휴일일 경우 그 전날로 함)
총무부: 4월 9일(월) 저녁 7시(매월 첫째주 월요일)
기도후원회: 매주 토요일 12시

* 장소는 모두 본선교회 사무실입니다.(☎ 720-4312)

교 재 및 테 이 프 안 내

1. 중국어 성경책(신약, 시편 및 잠언 합정본. 주음부호 붙었음) 5000원
2. 암송교재: 『使徒信經·主禱文 外』 1000원
『經文背誦』 1000원
3. 테이프: 암송교재 각권을 현지인의 발음으로 담은 테이프 개당 1000원

*구입방법: 본선교회 사무실에 오셔서 구입하시거나 우편으로 신청하셔도 됩니다.

(문의 ☎ 720-4312 김성순)

선교 중국어 강좌 안내

먼저 제 1기 선교 중국어 강좌가 여러분의 성원하에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본 선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제 2기 중국어 강좌를 개설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초급과정

대상 : 각 선교회, 신학교 및 대학교의 중국선교 지망자, 직장인으로서 중국 선교를 준비하는 자.
교재 : 방송통신대학 초급중국어 교재와 비디오 테이프
내용 : 발음과 기본문형, 기초회화, 찬송가
기간 : 1990.4.3 ~ 5.29 (주 2회, 화요일과 금요일, 19:00~21:00)
장소 : 중국어문선교회 강의실 (종로2가 명휘원 3층 301호)
수강인원 : 20명 (선착순)
수강료 : 4만원 (2달분)
강사 : 이 동 화 (서울대 대학원 중문학 석사)
개강일 : 1990.4.3(화요일) 저녁 7시

2. 중급과정

대상 : 상동
교재 : 중국문화이십강
내용 : 중국의 역사, 문화, 지리, 정치 등 문화 전반에 대한 소개
기간 : 1990.4.2 ~ 5.31 (주 2회, 월요일과 목요일, 19:00~21:00)
장소 : 중국어문선교회 강의실 (종로2가 명휘원 3층 301호)
수강인원 : 20명 (선착순)
수강료 : 4만원 (2달분)
강사 : 이 금 복 (대만 보인대학 중문연구소 석사)
개강일 : 1990.4.2(월요일) 저녁 7시

수가접수 및 마감

수강신청은 1990.3.31일 까지 중국어문선교회 사무실에 직접 나오시거나 전화 (720-4312)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강료는 신청시에 납입하여 주시고 전화로 신청하시는 분의 경우는 아래 온라인으로 송금하여 주십시오.

※ 송금 온라인 번호

수취인 : 중국어문선교회
국민은행 : 008-01-0454-178
상업은행 : 104-05-106251
조흥은행 : 325-1-062234
중소기업은행 : 002-01-0154-683
우체국 : 010892-0027775